

중앙일보

특별 프리즘

파주는 풀고, 연천은 막고 민통선 관광 기준이 뭐가



지난 2월 연천군 민통선 내 임진강 하안대를 재투파한 유전 아비규

“유는 아이 젖 주기 무인기” 경기도 지
책단 연천군 주민들의 피소연이다. 연천
군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는 아
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파
로 지난해 10월부터 11명이 입도해 생태
관광과 안보 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태
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 방문객 수도 몇
배 많은 파주 민통선 관광은 부분적으
로 지난해부터 사정되고 있다. 심지어
파주 임진강대는 곤돌라도 출시된 운행
중이다. 이 때문에 연천 주민들은 상대
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연천군 중면 평산리 민통선 내 임진
강 일대어들은 세계적인 두루미 생태
명소다. 매년 겨울이면 귀한 겨울 철새
인 두루미(연천기념물 제202호)와 재두
루미(천연기념물 제101호) 600여 마리가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겨울을 난다.
올해도 지난해 말부터 돌아오고 있다.
이곳은 지난 겨울에 이어 이번 겨울에
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민통선은 깊은
탐사대가 아랑곳 없는 일직강망와습지
황도 마찬가지다.
민군의 안보 관광지인 대동전망대와
연천군이 조성한 예술경시장인 연강경

관도 배겨 있다. 3년이 넘도록 민통선
관광이 불려지고 있었지만 철새투어는
통전장대는 휴전선 남측 11개 전방대가
문대 북한과 가장 가까워 있다. 북한 최
관광 지대는 평원경으로 조망할 수 있어
중우선성이 가장 인기 있는 안보 관광지
다. 연천 관광력이 연-7만명에 달했다.
이 예외로 연천 민통선 일대의 관광
경기는 최악으로 재고고 있다. 민통선
입구 근처 한 음식점 주인은 “파주 임진
강 지역 주민들은 풀 들어 1차라나트
레터까지 동원해 시위를 벌인 뒤 민통
선 관광이 재개됐는데, 연천 민통선 /